

남성노인의 성생활인식도와 우울과의 관계연구

권선숙* · 김명희* · 이원유* · 이인순* · 정연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개방사회와 더불어 과거에 노출을 꺼리던 부분이 자유스럽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성(性)에 대한 인식도 자유스럽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변화의 주 대상은 청소년기와 결혼후의 장년기가 대부분으로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Lee, 1999).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 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를 가리키는 노인인구비율이 7%를 초과하였고, 2010년에는 약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Sunwoo, 2000), 이러한 고령화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만족한 삶을 원한다. 만족한 삶이란 삶 전체에 대한 행복과 주관적 감정이며 태도로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Medley, 1976).

정신과의사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문화와 발전은 성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하였고, 노인의 성생활은 풍부한 인생과 축적된 경험으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性)이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성의 문제는 인간본능의 차원이며, 노년기의 부부관계에서도 성적인 조화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따라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생활을 위해서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부부간의 성적인 조화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4).

노년기의 성활동은 서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주며, 연대감을 부여하고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데 기여한다. 즉 노년기의 고독감 해소와 사람에 대한 보람을 높여주는 윤희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Kim & Han, 1996).

지금까지 성교는 젊은층의 특권이고, 노년층에서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화적인 믿음이 있었으나(Masters & Johnson, 1981),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젊었을 때의 성적인 공상 및 성욕, 성적인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부부의 54%가 성관계를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결혼한 남성의 70%가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였다(Lee, G. H., 1999; Pfeiffer, Verwoerd & Wang, 1968; Weinberg, 1982).

이와같이 노년기에 성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나, 종교적인, 그리고 배우자 사망등의 이유로 성생활을 그만두는 것은 노년기의 가장 흔한 정신장애인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노년기에 사별, 이혼, 별거중인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권선숙)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고 되었으며, 이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가 더 심하다고 하였다(Suh et al., 1998; Yun, 1985).

최근 연구(Lee, 2000)에 의하면 남성노인의 경우 성생활태도와 자아존중 및 삶의 만족도, 성생활욕구와 자아존중, 그리고 성생활중요도와 자아성취는 양의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성생활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생활을 하고있는 노인들은 성생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성적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기회가 되며 따라서 그들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어 우울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인에 대한 건강관련 저술들에서 생활의 질과 건강의 관점에서 성적 측면의 고려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노인의 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적고 주로 노화에 따른 성활동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Finkel, 1972; Selickman, 1971), 노인의 성의 부조화로 인한 우울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성생활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자신들이 성생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성생활인식도가 남성노인의 우울에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남성노인들에 대한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목적

남성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 남성노인의 우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남성노인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 3) 남성노인의 성생활 인식도를 파악한다.
- 4) 남성노인의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 5) 남성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성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남성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376명이었으나 불성실한 자료 6부는 분석하지 않았다. 분석된 자료는 서울시 68부, 경기도 185부, 강원도 52부, 전라북도 65부로 총 370부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건강과 성생활 관련 특성

자료수집에 사용된 일반적 특성은 연령, 자녀, 교육수준, 종교, 과거의 직업, 주거형태, 생활비조달자, 한달용돈, 현재 동거유형 등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관련 특성은 질병유무, 약물복용유무, 주관적 건강평가, 가족과 이웃 및 친지와 친구들과의 관계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건강평가와 가족과 이웃 및 친지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주 나쁘다'에서 '아주 좋다'까지 0점에서 4점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한다.

성생활과 관계된 특성으로는 배우자유무, 결혼생활 만족도, 무배우자 기간, 이성친구의 필요성, 현재 성생활유무, 월 성교빈도, 무배우자 중 마지막 성교연령, 최근 한 달안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잠자리 경험과 그 대상자, 성생활 변화에 대한 느낌 등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성생활 인식도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Lee(Lee, 2000)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11문항 5점척도로 0점에서 4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내용으로는 성생활욕구 3문항, 성생활 태도 4문항, 성생활 중요도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반분신뢰도는 0.69로 나타났다.

3) 우울측정 도구

우울은 Zung(1965)의 자가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 20문항 중 10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에서 4점에 이르는

5점척도이며, 부정문항은 역환산 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0.81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보조원이 연구지역의 시에 있는 경로당과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연구보조원이 읽어주고 응답자가 답변하는 일대일 면접 방법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이용하였고, 연령, 배우자에 따른 성관련 실태는 카이자승 검정(χ^2 -test)으로 하였으며, 특성별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은 신뢰수준 95%로 설정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60세에서 89세로 나타났고, 평균 69.35 ± 5.70 세로 60대가 55.9%(207명), 70대가 36.8%(136명), 80대가 7.3%(27명)로 총 370명 이었다. 배우자는 68.6%(253명)가 있었고, 자녀는 아들과 딸이 각각 평균 2.04 ± 1.32 명, 1.70 ± 1.44 명 이었다. 교육수준은 초졸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졸로 24.2%, 무학이 20.1%, 중졸이 16.6%, 대학이상이 14.4%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불교 24.2%였으며, 과거직업은 자영업이 2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업, 회사원, 공무원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35.6%, 단독주택이 33.7%이었다. 생활비조달자는 저축금과 연금 및 자녀들의 중복적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본인 34.8%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유형은 부부만 사는 경우 44.0%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경우 32.9%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7.7%는 현재 질병이 있었고, 1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대상은 44.7%로 나타났다(표 미제시).

연령별 배우자 관계는 60대는 74.3%, 70대는 64.7%, 80대는 44.4%로 전체 평균 68.6%에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교는 60대에서 70.7%, 70대는 36.8%, 80대는 23.1%가 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52.3%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Table 1> Comparison of sexuality in accordance age

Classification	Sixties N(%)	Seventies N(%)	Eighties N(%)	Total N(%)
Spouse (missing 1)				
Yes	153(74.3)	88(64.7)	12(44.4)	253(68.6)
No	53(25.7)	48(35.3)	15(55.6)	116(31.4)
Intercoitus (missing 5)				
Yes	135(70.7)	50(36.8)	6(23.1)	191(52.3)
No	68(33.5)	86(63.2)	20(76.9)	174(47.7)
Total	207(55.9)	136(36.8)	27(7.3)	370(100.0)
	(100.0)	(100.0)	(100.0)	(100.0)

Except of missing

2.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성생활의 비교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유배우자 중에서는 64.5%, 무배우자는 24.8%로 나타났고, 이성친구를 원하는 경우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31.4%로 비슷하였다. 최근 한달 이내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잠자리 경험은 전체 18.3%가 있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도 15.8%로 나타났으며, 그 잠자리 대상자는 애인이나 친구가 6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인 직업여성과는 25.0%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한달용돈, 성생활, 자가건강평가, 인간관계

대상자의 연령별 건강관련 특성 중 연속변수 분석 결과는 월평균 용돈은 80대가 약 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평균 약 17만원 이었다. 월 성교빈도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월평균 3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 대상중 마지막 성교연령은 평균 약 59세였고, 배우자가 없는 기간은 평균 약

<Table 2> Comparison of sexuality in old men between with and without spouse

Classification	Spouse N(%)	Non spouse N(%)	Total N(%)	t	χ^2
Intercoitus					
Yes	162(64.5)	28(24.8)	190(52.2)	49.375	0.000
No	89(35.5)	85(75.2)	174(47.8)		
Subtotal	251(100.0)	113(100.0)	364(100.0)		
Girl friend					
Want	54(31.2)	33(31.7)	87(31.4)	0.008	0.928
Not want	119(68.8)	71(68.3)	190(68.6)		
Subtotal	173(100.0)	104(100.0)	277(100.0)		
Bed with women except spouse in one month recently					
Experience	39(15.8)	27(23.7)	66(18.3)	3.190	0.074
Unexperience	208(84.2)	87(76.3)	295(81.7)		
Subtotal	247(100.0)	114(100.0)	361(100.0)		
Who are Bed with women except spouse?(n=66)					
Prostitute	3(18.7)	5(31.3)	8(25.0)	4.286	0.369
Girl friend	11(68.7)	11(68.7)	22(68.8)		
Others	2(12.6)	0(0.0)	2(6.2)		
Subtotal	16(100.0)	16(100.0)	32(100.0)		

Except of missing

11년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4점 만점중 전체평균 2.11±0.88로 나타났으며, 가족, 친지, 이웃과의 관계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4점 만점중 전체 평균 2.51±0.77로 나타났다(표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도는 총점 44점 중 대상자의 점수범위는 5점에서 34점이었고, 전체 평균 21.25±5.06이었으며, 우울은 총점 80점 중 11점에서 74점의 범위에 있었고 전체 평균 35.08±9.29로 나타

났다.

연령별 성생활 인식도는 60대에서 가장 높았고, 우울은 80대가 가장 높았다. 교육에 따라서는 수준이 높을수록 성생활 인식도는 높았고,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경우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성생활 인식도가 낮았고, 우울은 높았다. 동거유형별 성생활 인식도는 기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부만 사는 경우이며, 우울은 독거노인이 가장 높았고 기타가 가장 낮았다(표 4).

대상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배우자보다 성생활 인식도는 높고 우울은 낮게 나타났으며,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할수록 성생활 인식도가 높고 우울이 낮게

<Table 3> Comparison of contineus variables in accordance ages

Classification	Sixties	Seventies	Eighties	Total	F	P-value
	M±SD	M±SD	M±SD	M±SD		
a month Pocket money (ten thousand won)	17.57±23.01	16.10±18.75	23.44±27.82	17.46±21.96	1.270	0.282
Frequency of intercoitus(month)	3.13± 2.19	2.51± 1.51	3.10± 1.64	3.00± 2.06	1.121	0.328
Last coitus age(years)	55.98± 8.06	61.15± 8.23	64.77± 7.72	59.61± 8.58	8.941	0.000
Nonspouse duration(year)	10.55± 7.98	9.80± 8.94	19.00± 9.75	11.34± 9.10	4.558	0.014
Subjective health state	2.21± 0.87	1.99± 0.86	1.93± 1.04	2.11± 0.88	3.267	0.039
Relationship	2.54± 0.71	2.49± 0.85	2.44± 0.85	2.51± 0.77	0.266	0.767

〈Table 4〉 Perception of sex life and Depression in accordance with subjects

Classification		Perception of sex life			Depression		
		M±SD	t or F	P-value	M±SD	t or F	P-value
Age	Sixties	22.33±4.91			34.10± 9.03		
	Seventies	19.74±4.92	11.722	0.000	36.25± 9.27	2.697	0.069
	Eighties	20.52±4.93			36.74±10.67		
Education	Non	18.82±5.35			37.55±10.92		
	Elementary	20.57±4.85			36.06± 9.13		
	Middle school	21.72±4.98	9.026	0.000	36.03± 7.68	4.722	0.001
	High school	22.43±4.56			33.47± 9.28		
	Over college	23.38±4.52			31.34± 7.30		
Disease	Yes	20.17±4.77			37.30±10.53		
	No	22.18±5.15	3.850	0.000	33.29± 7.55	-4.202	0.000
Medication	Yes	20.28±4.56			36.41±10.14		
	No	21.96±5.33	3.161	0.002	34.29± 8.56	-2.148	0.032
Living together	Alone	19.79±5.28			38.00± 9.22		
	Man and wife	22.12±4.72			34.35± 9.34		
	Children	20.79±5.15	4.971	0.002	34.71± 8.86	4.366	0.005
	Others	24.33±4.13			27.67± 8.62		
Mariage status	Spouse	22.00±4.73			33.64± 9.19		
	Nonspouse	19.61±5.39	4.305	0.000	38.19± 8.79	-4.481	0.000
Satisfaction degree of a married	Unsatisfactory	20.91±6.04			35.91±12.68		
	Be usual	21.80±4.32	0.672	0.512	35.73± 7.78	3.683	0.027
	Satisfactory	22.31±4.80			32.52± 9.62		
Girlfriend	Want	23.51±4.73			33.84± 9.02		
	Not want	20.36±5.11	-4.871	0.000	35.72± 9.76	1.525	0.128
Life of sex	Being coitus	23.63±4.30			32.36± 8.18		
	Not being	18.68±4.53	-10.708	0.000	37.94± 9.51	6.028	0.000
Feeling on change Life of sex	Natural	21.23±4.77			34.66± 9.09		
	Depressive	21.62±6.28	0.546	0.585	37.87± 9.98	2.472	0.014
Total		21.25±5.06			35.08± 9.29		

나타났다. 이성친구를 원하는 대상자는 성생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성생활 인식도는 높고 우울은 낮았으며, 성생활 변화에 대한 느낌이 우울한 경우에는 우울이 높았다(표 4).

5.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특성 중 성생활 인식도와 연속변수와의 관계

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용돈과 성교빈도가 많을수록, 마지막 성생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건강평가와 가족이나 친지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성생활 인식도가 높았다. 우울과 연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았고, 용돈이 많고 주관적 건강평가와 가족이나 친지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았다. 위와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과 성생활 인식도와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서 성생활 인식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표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lassification	I	II	III	IV	V	VI	VII	VIII
Age(I)	1.000	0.061	-0.145	0.310**	-0.167**	-0.086	-0.231**	0.155**
Pocket money a month(II)		1.000	0.057	0.132	0.190**	0.105*	0.125*	-0.142**
Coitus frequency(III)			1.000	.	0.331**	0.282**	0.390**	-0.011
Age of last coitus(IV)				1.000	0.023	0.187*	0.267**	-0.036
Subjective health state(V)					1.000	0.445**	0.342**	-0.358**
Relationship(VI)						1.000	0.262**	-0.239**
Perception of sex life(VII)							1.000	-0.232**
Depression(VIII)								1.000

*: p<0.05, **: p<0.01

IV. 논 의

성(sexuality)이란 인간의 기본 욕구중의 하나인 성(sex)과 생식기와 성적 만족을 주는 행위인 성행위(sexual acts)의 개념, 정서, 태도, 관계형성 등의 정신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성적 장면을 전달하는 대중매체와 광고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다. 그러나 젊음, 아름다움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만 성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편견에만 연해 있는 실정이다(Yang et al., 2001).

또한 지금까지 성교는 젊은층의 특권이며, 젊은층에 적당한 것이고, 노년층의 성교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정상적이고 불결하다는 문화적인 믿음이 있었다(Masters & Johnson, 1981). 그러나 노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계속 주장하면 현실과 많은 괴리를 초래할 것이다.

종종 리비도로 표현되는 성적 관심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접촉하려는 욕망을 뜻하며 8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이런 성적 관심이 여전히 존재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육체적인 성적 접촉을 원하고 있다(Bae & Kim, 1996).

평균연령이 69.35±5.70세인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는 52.2%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고, 대상자 중 31.4%에서 배우자가 없었는데 그 배우자가 없는 대상에서도 24.8%는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

에 의하면 19.5%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32.8%인 결과도 있었다(Lee, 1999; Kim & Lee, 2000). 이러한 결과보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60세이상의 여성노인은 56.5%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Lee & Choi et al., 2001), Diokno 등의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남자 73.8%, 여자 55.8%에서 활동적인 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보고와 비교해서 본 연구의 52.3%는 보편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겠다.

이와같이 노인에게도 성생활은 중요하고 성생활에 관심이 있으며, 성적 관심이 80대까지 유지된다 하였고, 나이가 80-102살의 200명의 건강한 사람 중에 30%의 여자와 62%의 남자에서 성교가 가능(Lee & Choi et al., 2001; Verwoerd, Pfeiffer & Wang, 1969; Lee, G. H., 1999)한 것으로 보아, 단지 늙었다는 이유와 종교적인 영향과 사회관습적인 분위기로 노년층의 성관계를 타부시하고 금기시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예측하여야 하겠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31.4%에서 이성친구를 원하였고, 최근 한달안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잠자리 경험이 있는 자가 전체의 18.3%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 중에서도 15.8%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잠자리 경험이 있었다. 그 잠자리 대상으로는 애인 또는 친구가 응답자 중 68.8%로 가장 많았지만 응답자 중 25.0%에서는 직업여성과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 간호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간호를 위한 성상담과 성교육을 위해서 본 연구 결과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교의 빈도는 점차적으로 감소

한다고 하지만(Diokno, Brown, & Herzog, 1998; Verwoerd, Pfeiffer & Wang, 1969),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월평균 3회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일반 성인 중 36.7%에서 월평균 3~4회로 나타난 것과 비슷하였고, 월평균 1-2회인 성인만성질환자들 보다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Go & Lee, 2000). 또한 65세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월평균 1.29회와 1.37회(Kim & Lee, 2000; Lee, 2000)보다 월등히 많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남성노인의 성생활 인식도는 연령, 교육수준, 질병유무, 복용하고 있는 약 유무, 함께사는 가족 동거유형, 배우자 유무, 이성친구를 원하는 자와 현재의 성생활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연구보고들과 유사하였다(Kim & Lee, 2000; Lee, 2000; Lee & Choi et al., 2001).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족 동거유형에서 기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부만 사는 경우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Lee, 2000; Lee & Choi et al., 2001)에서는 부부만 사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타에 응답한 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노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장애인 우울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육수준, 경제상태, 신체적 건강문제, 낮은 사회계층, 배우자와 사별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 졌다(Suh & Cho et al., 1998; Park & Kim et al., 1998; Sung, 1997). 그러나 본 연구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성생활 측면에서 다루어 졌는데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우울은 교육수준과 질병유무, 복용약, 가족 동거유형, 배우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생활과 우울과의 관계는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성생활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움을 표시한 대상에서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성생활 변화에 대한 우울감을 표시한 대상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성생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우울감과 배우자에게 민망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고 호소하였던 것과(Oh, 1998) 같은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은 음의 상관관계로 성생활 인식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는데 이는 성생활 인식도와 자존감과 생활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유사

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Lee, 2000). 이와같이 남성노인들의 성생활 인식과 우울은 관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전인적 간호 측면에서 남성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시설 중사자들이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체로 부정적이며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표출방법이 다양하고 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인 성적 표현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인들이 성적인 욕구를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시설 중사자들이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법이나 대안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상담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Oh & Sin, 1998).

이와같이 이제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60세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생활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3개도에 있는 일부 시에 소재한 60세이상 지역사회 재가노인 370명이었고, 자료수집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2월까지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도구는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9.35±5.70세 이었고, 68.6%는 배우자가 있었고, 52.3%는 현재 월평균 3회의 성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성생활 인식도는 44점 만점 중 21.25±5.06, 우울은 80점 만점 중 35.08±9.29이었다.
- 2) 각 특성별 성생활 인식도는 연령상 60대가 가장 높고 70대가 가장 낮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질병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성친구를 원하는 경우와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높았으며(P=0.000),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이 없는 경우(P=0.002)에 높았다.
- 3) 각 특성별 우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01), 질병이 없고(P=0.000) 복용약이

없는 경우($P=0.032$), 함께 살고있는 가족유형에 따라($P=0.005$), 유배우자($P=0.000$), 결혼생활 만족($P=0.027$),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P=0.000$), 성생활에 대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P=0.014$)에 우울이 낮았다.

4) 성생활 인식도와 우울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로 성생활 인식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남성노인의 우울은 성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긍정적인 성생활은 남성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24.8%의 대상자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욕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노인의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남성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2. 동거유형의 변수에서 기타의 경우가 성생활 인식도가 가장 높고 우울이 가장 낮았는데, 그 구체적인 변수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Bae, C. Y., Kim, Y. J. (1996). *Medicine of elderly*. Seoul: KoreaMedicine, 1sted, 497-506.
- Diokno, A. C., Brown, M. B. & Herzog, A. R. (1998). Sexual function in the elderly. *Arch Gen psychiatry*, 19, 753-758.
- Finkel, A. L. Thompson, Rechard. (1972). Urologic counseling in male sexual imprtence. *Geriatrics*, 27(Dec), 67-72.
- Kim, M. A., Go, H. J. & Lee, B. S. (2000). A study on the sex life of the chronic disease. *Korea Nursing*, 69-76.
- Kim, T. H. (1994). *Gerontology*. Seoul: Gyomunsa.
- Kim, T. H & Han, H. S. (1996). Sex of old ages. College of Sungsin Woman, *study of Life cultrue*, 10: 89-107.
- Lee, G. H. (1999). Sex of elderly. *Journal of The Geriatrics Society*, 3(2), 1-6.
- Lee, C. E.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ex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HanYang University master academy.
- Lee, S. K., Choi, S. H., Chun, T. K., Kim, H. S., Kim, S. H. (2001). Sexuality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old women. *J Korean Acad Family Med*, 22(3), 386-396.
- Masters, W. H. & Johnson, V. E. (1981). Sex and the aging process. *J Am Geriatr Soc*, 29, 385-390.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Oh, J. J. (1998). A Study on sexual experiences and behaviors of aged in community.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edmic Society*, 12(2), 236-251.
- Oh, J. J., Sin, E. Y. (1998). A Survey on the Experiences of the Staffs in a Home for the Aged about the Sexual Desires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8(2), 97-109.
- Park, I. O., Kim, J. S., Lee, K. J., Jung, I. K. (1998). Depressive Factors in the Korean Elderly. *The Journal of Geriatric psycho - medical*, 2(1), 47-63.
- Pfeiffer, E., Verwoerdt, A., Wang, H. (1968). Sexual behavior in aged men and women. *Arch Gen Psychiat*, 19, 753-758.
- Selickman, M. A. (1971). Medical care in a facility for the healthy aged. *Geriatrics*, 26, 107-117.
- Suh, G. H., Cho, D. Y., Rhoo, I. K., Yeon, B. K., Choi, I. G., Cho, M. J. (1998).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Geriatrics Society*, 2(1), 49-60.
- Sung, G. W. (1997). Cognitive Function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 Korean Academy of Nursing*, 27(1), 36-45.
- Sunwoo, S. (2000). Policy direction of elderly health. *Forum of Health welfare*, 40, 44-53.
- Weinberg, J. S. (1982). Human Sexuality and Spinal Cord Injur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7(3), 407-419.
- Yang, K. H., Kim, S. H., Kim, O. S., Kim, O. H., Kim, C. G., Kim, H. S., Noh, K. H., Noh, Y. H., et al. (2001). *Care of the older adult*. Seoul: Sumunsa, 382-398.
- Yun, J. (1985). *Adult Geriatric psychology*. Seoul, Jungang print Co.

-Abstract-

A Correlational Study on Perceived Sex life and Depression in Old Men

Kwon, Seon Suk · Kim, Myoung Hee**
Lee, Won Yu · Lee, In Soon**
*Chung, Yeon Kang***

Purpose: Sexuality is important for the quality of life in old men, but this issue has been less explored due to social prejudice.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scribe a correlation between sex life and depression perceived by old men.

Method: The subjects were 370 old men who were aged over 60 and lived in a city and three provinces.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Perception of Sex life Scale (11 items) and Depression Scale (20 item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2001 to February 2002 by written responses of the subjects to the questionnaire as well as one-to-one interview by research assistants for subjects.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data was done using SPSS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tested at 95% of confidence interval.

Result: 1)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69.35 ± 5.70 . A total of 253 subjects (68.6%) had spouse, and 191 of the subjects (52.3%) had sexual intercourse as frequently as 3 times per month. The average score for perception of sex life was 21.25 ± 5.06 , out of the total score of 44, and that of depression was 35.08 ± 9.29 out of the total score of 80. 2) Perception of sex lif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age, education, disease, medication, living arrangement, marital status, presence of girlfriend, pattern of inter-coitus, pocket money, age of last coitus, subjective health state, and relationship ($P < 0.05$). 3) Depress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age, education, disease, medication, living arrangement, marital status, satisfaction for marriage life, pattern of inter-coitus, feeling for change of sex life, pocket money, subjective health state, and relationship ($P < 0.05$). 4)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sex life and depression was negative, showing that depression tended to decrease as perception of sex life increases.

Conclusion: It is concluded that depression in old men is closely related to their sex life. Positive sex life ma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old men.

Key words : Old men, Perception of Sex life, Depression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prof. Depare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